

“박기동 시인과 안성현 작곡가 인연에 초점 맞췄죠”

창작음악극 '부용산' 대본 쓴 광주 출신 김경주 시인

“박기동 시인과 안성현 작곡가의 인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비극적이었거든요.”

오는 23일 오후 4시 보성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려지는 창작음악극 '부용산' (연출현대철) 대본을 쓴 시인이자 극작가인 김경주(43) 씨. 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 제작되는 '부용산' 작업에 처음 참여했다. 광주가 고향인데다 보성이 외가여서 어렸을 때부터 부용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최근 기자는 서울에 거주하며 작품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김경주 극작가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극본을 쓰게 된 계기, 작업 과정 등을 말하는 그는 작가 특유의 당당함과 자의식 같은 게 느껴졌다.

이편의 질문에 모범답안을 쓰듯 줄줄 쏟아내는 말은 정교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대로 문어로 바꾸면 극본이 될 것도 같았다. 그는 광주 고려고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200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이 당선됐다. 아마도 시와 극을 오가는 '양수겸장'이라 그의 언어가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듯했다.

김경주 시인은 “당시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자료를 토대로 극을 썼다”며 “사건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한 “고향 선배인 예총 보성지회장 이상수 시인이 대본을 한 번 써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 작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용산'은 1948년 목포를 비롯한 남도 지역에서 많이 불려졌던 노래다. 당초 이 노래는 박기동 시인의 시 '부용산'이 모티브가 됐다. 발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박기동 시인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병에 걸려 유명을 달리한다. 시인은 한 떨기 꽃처럼 스러져간 여동생을 위해 '부용산'이라는 시를 짓는다. 이후 목포 항도여중으로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동료 교사인 안성현이 곡을 붙여 노래로 탄생한다.

“1948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한 해지요. 여순사건과 제주4·3항쟁이 모두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우리 현대사의 아픈 역사로 남아 있지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 즈음에 '부용산'이라는 노래가 많은 이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구요.”

주인공 목소리 들을 수 없어 자료 의존
사건보다 그 시대 사람 목소리 주안점
성장통·가족사 경험 등 창작 기초 돼
23일 보성문화예술회관서 공연

아마도 그는 시인으로서 박기동 시인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또한 음악극이기 때문에 안성현 작곡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었다. 남도 정서와 심미적 감각 등에 있어 그가 대본의 적격자인 듯했다.

“초본을 쓰고 작시를 맡은 이상수 시인과 음악 감독인 이지영 씨와 구성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희곡이 올려지고 나면 관객에게 전해지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와 음악은 매우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번 음악극을 비롯해 뮤지컬, 시극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작업을 했다. 특히 오랫동안 '시와 극을 합치는' 활동을 펼쳐왔다. 시극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김경주라는 이름을 기억한다.

“문학 장르 태도를 보면 시와 극은 원래 하나였



다”는 말에서 그의 관심의 방향이 짐작된다. 대표적인 '나비집'이 지난 201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순수창작시극 형태로 공연됐고, 2016년에는 한글판, 영문판으로 동시에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 현재 미국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데뷔작인 '늑대는 눈앞부터 자란다'도 일본어로 번역돼 올해 안에 일본에서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다.

“글을 쓰는 토대는 고향 광주의 감수성입니다. 고향에서의 성장통, 가족사적 경험 등이 창작의 토대가 된 셈이죠.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끝낼 때 느끼는 창조적 희열은 다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강렬한 힘이니깐요.” 문의 010-3955-0819.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공연됐던 음악극 '부용산' 장면

<한국예총 보성지회 제공>

흥남철수 비하인드 스토리 소설로 엮어

민혜숙 작가 '돌아온 배'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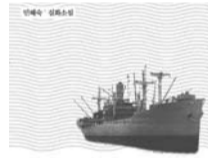
매리디스 빅토리아호는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운 기록으로 지난 2004년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6·25 전쟁의 아비규환 가운데 민간인들을 피난시키기 위해 군대는 무기를 버리고 상인은 물건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불타는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아름다운 기적이 1만4000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그중에는 문 대통령의 아버지도 있었다고 한다.

호남신학대학교 겸임교수인 민혜숙 작가가 흥남

철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설로 엮은 '돌아온 배' (케포이북스)를 펴냈다. 작가는 당시 매리디스 빅토리아호에 있었던 포니 대령의 가족,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포니와 손자인 네드 포니를 주인공과 화자로 삼아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섬섬함함으로 인해 이들의 해군 입대를 못마땅해 하는 에드워드 포니와 그러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네드 포니의 갈등으로 이야기는 시작한다.

아버지의 태도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직감한 네드는 결국 할아버지의 행적과 마주하게 된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먼 나라 한국에 포니 대령이 남겨두었던 인간애에 공감하게 된다.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실존인물이지만 심리 상태와 갈등은 모두 허구다. 역사가 말하지 않은 빈 공간을 빌려 작가는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것을 수 없는 당시의 기억을 노래한다. 한편 민 작가는 연세대 불문과와 동 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4년 '문학사상'에 중편이 당선돼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서울대 시지푸스', '사막의 강' 등의 소설집과 '문학으로 여는 종교', '한국 문학 속에 내재된 서사의 불안' 등의 연구서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위플래쉬'

영화 '위플래쉬' '브라보! 재즈라이프' 보러 오세요

앎문화전당 '빅도어 시네마' 22~23일... 재즈 공연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2일부터 이틀 간 '빅도어 시네마'를 진행한다. 실외에 있으면서도 풍부한 음향을 맛볼 수 있는 빅도어 시네마의 장점에 걸맞게 이번에는 음악 영화 2편을 선정했다.

22일 오후 8시에는 재즈의 폭발력을 106분간 느낄 수 있는 영화 '위플래쉬(Whiplash)'를 상영한다. 위플래쉬는 영화를 보는 내내 한 곡의 드럼 연주를 연상시킬 정도로 극적인 긴장감과 몰입도를 보여준다. 다미엔 차젤레 감독은 아

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으며 '폭군' 플랫폼으로 등장한 J. K. 시몬스는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등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트럼펫의 대가 강대관과 재즈 이론가 이판근씨 등 국내 재즈 1세대 뮤지션들의 삶과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브라보! 재즈 라이프'를 선보인다. 국내 최초로 재즈이론을 연구해온 '이판근연구소'가 절가된다는 소식을 듣고 여행길에 오른 노년의 재즈 거장들은 술상을 앞에 두고 즉흥연주를 시작한다. 영화를 연출한 남무성 감독과 대화 시간이 마련되고 영화 속 주인공들의 공연 무대도 즐길 수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601-401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어려운 경제학, 고사성어로 쉽게 풀어

노상채 조선대 명예교수 '고사성어로 보는...' 펴내

“매물비용(埋沒費用)은 앞질러진 물은 주위 담을 수 없다는 속담 또는 '복수불반'(覆水不返) 고사를 연결하니 쉽고 인상적인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외부효과(外部效果)는 죄는 도깨비가 짓고 백악은 고목나무가 맞다는 속담과 함께 '옥석구분'(玉石俱焚)으로 설명하니 편리했다. 가치제(價値材) 또한 '양약구구'(良藥苦口)로 설명하니 유용했다. 속담과 고사성어가 간결하고 명쾌한 언어로 조상들이 삶의 지혜를 전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새삼 확신할 수 있었다.”

경제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운택한 살림살이를 찾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난해하고 딱딱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학 용어의 대부분은 현실에서 파생됐으며 그 안에 자신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한자와 고사성어, 경제학까지 아우르는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노상채 조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펴낸 '고사성어로 보는 스토리 경제학(글라이더)은 어려운 경제학을 고사성어 이야기로 풀어낸다. 일례로 '서시빈목'(西施顰眉)이라는 고사성어를 '밴드왜건 효과'라는 경제 용어와 결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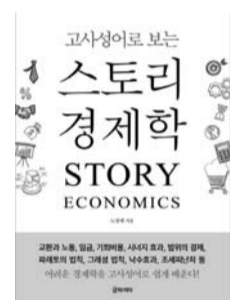
'서시빈목'은 중국의 4대 미녀 가운데 한 명인

서시와 관련이 있다. 그녀는 가슴앓이 병이 있어서 항상 눈을 찌푸리고 다녔는데 마을의 못생긴 여자가 이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마을 사람들은 못생긴 여자의 흉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장자'의 '천운' 편에 나오는 설화다.

서시빈목에서 서시는 사람이고 빈목(瞋目)은 눈을 찌푸린다는 뜻이다. “영문도 모르고 남의 흉내를 내는 일, 남의 단점을 장점으로 줄 알고 모방하는 일 등을 비유할 때” 쓰는 고사성어다.

경제이론에서 '밴드왜건 효과'는 자기 주관 없이 남을 따라 소비하는 행동을 말한다. 서커스 행렬의 선도차, 즉 밴드왜건이 마을에 들어 서면 어린아이들이 줄줄 따라간다. 라이덴슈타인은 이를 밴드왜건 효과, 달리 말하면 동행효과 또는 편승효과라 한다. 이처럼 저자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용어를 고사성어와 섞어 설명한다. 자본과 자원, 교환과 노동, 기업과 시장경제 등 일견 어려워 보이는 경제 분야가 재미있게 다뤄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